

(일반논문)

동양극장의 인기 레퍼토리 연구

최지연

(대경대학 연극영화과 겸임교수)

차 례

- | | |
|------------------------|----------------|
| 1. 머리말 | 1) 비극적인 결말의 작품 |
| 2. 동양극장을 빛낸 전속 단체와 사람들 | 2) 희극적인 결말의 작품 |
| 1) 전속단체 | 3) 이념적인 결말의 작품 |
| 2) 빛낸 사람들 | 4. 맺음말 |
| 3. 대중의 우상과 인기 레퍼토리 | |

1. 머리말

한국은 1910년 8월의 한일합병조약에 의거하여 주권을 일제에 넘겨주고 36년 간의 악랄한 침략과 강압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여건하에 연극인의 염원이었던 동양극장이 1935년 11월 1일 홍순언과 배우자 부부에 의해 연극전용 상설, 연중무휴 공연을 목표로 건립되었다.

이에 맞추어 유민영은 “극장이란 한 나라의 문화를 개화시킬 수 있고 타락시킬 수도 있다. 그 만큼 극장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극장은 공연예술을 창조하는 또 보급도 하는 집이다. 그리고 영상예술이 관객과 만나는 장이기도 하다”고 역설했으며 또한 박노홍은 “극장은 대중예술의 개화지²⁾”라고 주장하면서 연극, 영화, 무용, 음악 등의 대중예술이 극장 없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발표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뜻을 맞춘 동양극장은 1930년대의 문화공간으로 전문적 직업배우, 연극전용극장, 당대 최고의 극작가와 연출가를 망라하여 당시의 연극계를 주도함으로써 우리 근대 연극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동양극장을 빚낸 전속단체와 사람들을 살펴보고 공연과 흥행에 지대한 역할을 한 극작가들의 작품 중 당시 인기 레퍼토리였던 작품들을 골라 분석함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2. 동양극장을 빚낸 전속단체와 사람들

1) 전속단체

동양극장은 1935년 11월 1일 연극전문극장으로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가 62번지에 홍순언과 배구자 부부에 의해 신축개관 되었다.

동양극장은 개관기념공연으로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배구자악극단의 〈향토방문 대공연과 대작영화 동시개봉을 감행하는 레뷰, 연극, 영화의 삼중주적 특별 대흥행〉을 진행하였다. 그 중요 순서는 만국 〈명탕구리 제2세〉(5경), 춘극 〈월급날〉(1경), 무용극 〈급수부〉(1경), 소녀관현악단의 무대연주 수중, 무용 5중, 조선무용 〈아리랑〉, 독창, 합창, 뮤직 플레어 등이었고 이어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은 역시 배구자 악극단의 석별흥행으로서 최독건 작의 악극 〈피리의 기적〉, 문예부 제공 악극 〈쌍동의 결혼〉, 춘극 〈아침하다 봉변〉(1경), 소녀관현악단 무대연주, 각종 무용³⁾ 등을 보여주었다.

개관기념 공연이 끝난 다음 1935년 12월 15일에 젊은 세대의 집결로 주로 신주류의 연극을 공연한 청춘좌를 결성하였고 1936년 2월14일에 변기종을 단장으로 하여 주로 역사극(시대극)을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동극좌를 탄생시켰으나 1936년 7월 5일에 해체되었다. 동년 3월 26일에는 전경희를 단장으로

1) 유민영(柳敏榮), 『한국근대극장변천사』, 태학사, 1998, p.15.

2) 박노홍(朴魯洪), 「한국극장사」, 《한국연극》 4권 5호, 1979년 5월, p.64.

3) 위의 글, p.64.

하여 주로 희극을 공연한 희극좌를 선보였다. 9월 29일에는 동극좌와 희극좌를 합동하여 호화선으로 명명하였으나 1946년 12월에 해산되었다. 이 호화선에서는 음악부를 둔 것이 특색이었다. 다시 1941년 11월 7일에 호화선을 개명하여 성군이 결성되어 활동하다가 1946년에 해체되었다.

동양극장이 그 전속단체에 우수한 연극인을 많이 포섭하여 연극계의 양상이 달라진 감이 없지 않으나 흥행극계에는 여전히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동양극장의 전속단체들은 연중무휴로 공연을 했으며 지방공연을 자주한 까닭에 동양극장의 무대를 여타 연극단체 즉, 신무대, 황금좌, 예원좌, 연극시장, 그리고 태양극장 등에 맡기는 일이 많았다.

2) 빛낸 사람들

동양극장을 빛낸 사람들은 직접 무대 위에 선 사람들과 무대를 만든 사람들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대개 20~30명 정도였다. 이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유민영의 『한국인물연극사』에서 상세하게 수록해 놓고 있다.

우선 동양극장의 무대 위에 선 사람들을 살펴보면, 연기를 신양처럼 했던 만년배우인 변기중, 20세기 최고의 대중연극 스타 황철, 천부적인 여배우 차흥녀, 동양극장 초기의 인기스타 심영, 타고난 여배우 문정복, 연극계 중인 서일성, 노력하는 여배우 박영신, 양백명, 생애가 연극보다 더 비극적이었던 비운의 배우 이동호, 김승호, 이경설, 이경환, 왕평, 그리고 이애수 등이었다.

다음으로 동양극장의 무대를 만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연극사상 전 문연출가 제1호 홍해성, 연극의 아버지 최독건, 지난 시절의 대표적 풍류연극인 박진, 피지배민족을 눈물로 달래준 멜로드라마 작가 임선규, 연극연출을 위해 태어난 천재 안영일, 건실한 실력자인 연출가 나웅, 월북연극인의 대부 송영, 세기의 만담가 신불출, 친구따라 강북간 이서향, 작가 박신민, 임선호, 연극사에 정통한 한노단, 이운방, 김건, 박영호, 김태진, 김진문, 신향우, 이무영, 그리고 굴절된 신극사의 상징적인 비극작가 함세덕 등이었다.

그리고 최초의 무대미술가 원우전, 무대 뒤의 명배우 프롭프터 유일, 그리고 조선연극협회 상임이사 김관수 등이었다.

3. 대중의 우상과 인기레퍼토리

1) 비극적인 결말의 작품

동양극장에서 공연한 작품 중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 작품은 임선규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청춘좌, 1936.7.23~31), <유랑 삼천리>(호화선, 1938.10.25~11.4), <유정무정>(청춘좌, 1936.8), <복두칠성>(호화선, 1939.6.17~26), <수풍령>(청춘좌, 1936.9.18~23), <검사와 사형수>(청춘좌, 1935.12.24~27), 그리고 박신민의 <대지의 어머니>(청춘좌, 1940.6.26~7.2) 등이었다.

동양극장에서 가장 인기를 누렸던 작가는 임선규로 그의 작품은 동양극장 최고의 인기 레퍼토리였고 해방 전 연극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한 작품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⁴⁾로써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였다. 이 작품은 전 4막 5장으로 청춘좌에 의해 1936년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동양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박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러고 보니 동양극장시절에 상연했던 극본록을 꾸미려나 하고 오해할지 모르나 세일 수 없이 수많은 극본을 기억도 할 수 없거니와 거개가 기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일화가 있는 몇 개만을 쓴다. 그렇게 해서 단종애사의 막을 올려 놓았으나 그 실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언제 창외와 중지령이 내릴지 조마조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문제작을 내 놓아서 ‘손님발’이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이 전원의 소망이요, 홍순연의 열망이었다. 더구나 홍은 그의 어깨에 19만5천원의 은행빚이 올라앉아 있는 것이다. 어쨌든 다음 극본이 미리 준비됐어야 했었겠지만 이렇다할 것

4) 이 작품은 <홍도야 우지마라>라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주로 유랑극단들이 변조해서 사용했던 명칭이다. 고설봉(高雪峰), 『중언 연극사(證言 演劇史)』, 도서출판 보양(普陽), 1990, p.70.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공연은 첫날은 관객이 없었으나 둘째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했다. 연일 관객이 장사진을 치고 표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었는데도 일주일만에 극장사정이라며 공연을 중단하였다. 급히 임선규에게 속편 집필을 부탁하여 석달 뒤 부민관에서 <사랑에 속고-> 전, 후편 대회를 개최하였다. 질서유지를 위한 기마경찰대가 파견된 것도 이때의 사건이다. 해방전 정보극장에서 극단 아랑의 <사랑에 속고-> 공연은 서울에서만 15회째 상연 기록을 세웠다.

이 없었다. 홍순언은 울상이 되어서 연신 '사이상'(崔樣), '복상'(朴樣)만 찾으며 밤잠 못 잤다. 그런 어느날 아침 내 방으로 오더니 “그 '권센케이'(임선규의 일어음)’라는 사람이 써 왔다는 극본을 좀 보여 주십시오”하고 예의 공손을 잃지 않았다.

느닷없이 자기는 알지도 못해야 하는 극본을 보여 달라는 내용은 이러했다. 청춘좌원인 김동규란 배우는 지방극단에서 발탁되어온 사람인데, 그의 친구에 임이라는 연극시장 단장인 문일수의 사위로서 그 측근을 따라다니며 극본을 쓰는 청년이 있는데 그 김배우가 누차 나에게 그 사람의 극본을 시험해 보아서 출세를 시켜달라고 청을 하면서 한편을 써온 것이 있었다.

원제목은 잊었으나 읽어보니 이건 지독한 신파 중의 신파로써 신파의 원소 48수가 다 들어 있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투고처분 상자속에 쳐 놓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무심히 지냈더니 아마 그 김배우가 홍순언에게 간곡한 청을 한 모양이어서 그것을 달래가지고 한낮과 한밤을 소비하여 읽어 보았던 모양이었다.

그 이튿날 자못 희색이 만면한 홍군이 그 원고봉치를 끼고 와서 '사이상', '복상'을 부르면서 들어왔다. 첫마디가 이렇게 좋은 극본을 두고서 공연히 걱정을 시켰느냐고 나무랄 비슷한 말도 했다. 그 말의 속을 아는 독견과 나는 그런 것을 차마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대를 했더니 홍왕 “만일에 이것이 '아다루'(當)-들어 맞는다는 일어, 즉 흥행이 성공적으로 된다는 말-하면 이 '나쁘가래'에 나는 은행빚을 갚게 됩니다. 살려 주십시오”-그러나 두 사람은 굳이 반대를 했다.

그랬더니 끝내는 홍군이 화를 내며 “이것은 내 극장이오”하고 나오는 데는 지배인도 별것 아니요, 나는 더구나 명색도 없었다. 애초에 홍순언과 독견과 나와 의 포부는 일치되는 바 있어 동양극장을 순전히 '돈벌이 하는 곳'으로만 여기지 않기로 했었지만 막상 시작해 놓고 보니 마음이 달려졌고 흥행 속을 이미 잘 아는 홍군인지라 그 짜는 여름에 2연타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 가위 눈이 뒤집혀진 것도 무리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런 홍군이라 제 의사에 반대하는 독견을 몹시 못마땅히 여겼다.

아마 독견을 나중에는 자주 보기 싫어하게 된 최초의 이유요, 원인이 이 때문이기도 했다. 그때 그렇게 흥은 화를 냈고, 독견은 약이 올랐고 나는 생각을 달리해서 이렇게 약속이 틀리면 물러서자 하는 마음까지 들었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극장이오”에는 꿈쩍할 수 없어서였던지 독견은 오히려 나를 달래며 '고오상'(洪樣) 하자는 대로 하자고 후퇴를 했다.

이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도는 홍은 다시 부드러워지며 이름이나 고치자는 우리의 요구에 선뜻 응했다. 그때부터는 제명을 이것 저것 제각기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홍이 기묘한 제명을 제출했을 뿐 결정적인 문제작으로써의 제명은 나오지를 않았다. 그러자 아직도 약이 덜 가라앉은 독견이 룡조로 홍군을 비웃느라고 불쑥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하고 입을 비죽하며 나를 쳐다 보았다.

이것은 홍에 대한 화풀이로 약을 올리자는 속셈으로 내뱉었던 장난인데 이 말이 떨어지자 홍군은 테이블을 탁 치며 “됐다”하고 환성을 올렸다. 그리고 나서 “갑시다” 하더니 자동차를 전화로 불러서 명월관으로 안내를 했다. 홍예겐 환희의 술이요, 독견은 그 때 술이 짧았으니까 두어잔에 紅당무가 되어 약이 다시 올랐고 나는 신세타령을 하면서 말뜨물 먹듯 마구 마셨다.”⁵⁾

공연 후 관객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박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무튼 이것을 보러 기생, 오입쟁이, 노나니꾼, 바람둥이, 시골사람, 촌사람 몰리고 몰려 극장 전면을 환하게 박아 놓은 우리가 모조리 깨지고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정리한다고 나와서는 구경은 사람을 두들겨 패고 새문 마루턱이 막혀 전차가 못 다닐 지경을 하면서 아흐렛 동안 공연을 했다.

분장실은 홍도 좀 만나자고 찾아드는 기생들로 붐볐고 그 오라비 역을 한 황철이는 도색(桃色) 아가씨들의 인사차 내방으로 핑크색 비명을 올렸었다.

그러면서 그 연출을 맡은 나를 찾는 할미 하나 없었으나 나는 이름을 바꾸고 싶도록 낮이 화끈거렸다. 그것을 홍군은 신이 나서 영화로 한다고 법석을 했지만 이모씨의 감독과 기술이 자신은 있었건만 현상을 해보니 흑과 백으로 구분이 되어야 할 그림이 시종 흑만 나와서 결국 그 당시에 거금인 4천원을 손해보고 단념했다.

그 때 이 연극에 이서구가 쓴 가사를 붙여 ‘길가에 핀 꽃이라 꺾지를 마오-홍도야 울지마라 오빠가 있다’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유행가는 요리집은 고사하고 목노집, 색주가집, 심지어 거리 거리에서 판을 쳤다.

그리고 진짜 신과 극단에서는 이 연극의 표절 아닌 도용으로 재미를 보았었고, 홍

박진, 『연극에세이 세세연년』, 세손출판사, 1991, pp.149~151.

순연의 입이 귀밑까지 찢어져 돈 주체를 못 할 정도의 연극이긴 했지만, 그 연출은 내가 했다.

연극의 신이시여! 죄를 사하여 주소서!”⁶⁾

1936년 7월 24일 매일신보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했다.

“모든 것을 초월(超越)하여 오직 진정(眞情)만으로, 맺어진 사랑, 하늘이 무너져도 깨어지지 않은,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하지만 세상(世上)은 그들을 언제까지든지 그대루 두지 않았다…… 〈기생(妓生)은 백년(百年)을 재주를 넘어도 기생(妓生)이었고 〈개구리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였다. 세상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차즈라 하면서도 늘 오든 길을 뒤주려하는 것 같았다…….”⁷⁾

1936년 8월 29일 매일신보에는 3막의 속편이 제작되었다는 광고를 했다.

“만도국(滿都劇) 팬의 눈물을 있는대로 짜아내인 명작비극(名作悲劇)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속편(續篇)이 만인(萬人)의 대망(待望)그여히 상연하게 되었다. 생명보다도 중한 사랑을 빼앗기고 마침내는 그 사랑의 원수를 칼로 찔러 살인범(殺人犯)의 죄목(罪目)으로 끌려리게 된 것도 기구(畸鶻)한 운명이거니와 잡아가는 경관(警官)은 둘도 없는 그의 오라버니였으니 신(神)은 알구진 희롱을 막우 하였다. 이 비련(悲戀)의 기생 홍도(妓生 紅桃)는 그후 었지나 되었는지 몹시 안타깝고 굶 굶한 일이었다. 조선(朝鮮)서 처음보는 재판극(裁判劇)! 보라! 공정무사(公正無事)한 법관(法官)은 과연(果然) 었더한 판결(判決)을 나리는가! 홍도(紅桃)와 심영호(沈影浩)는 결혼(結婚)을 할 것인가 못 할것인가. 또 한바탕의 눈물과 한숨을 자아내고 이 사건(事件)의 끝을 막는다.”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는 사랑을 위해 희생하고 그 희생에 대해 배신당하

) 위의 책, pp.144~145.

) 《매일신보》, 1936. 7. 24.

) 《매일신보》, 1936. 8. 29.

는 한 여성의 불행하고 비극적인 삶, 즉 행복-고난-불행으로 이어지는 시대현실을 반영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작품은 폭발적인 관객동원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이 작품이 동아일보에 1946년 8월 4일까지 공연광고가 보도되었는 바, 그것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임선규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공연광고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다음으로 히트작품은 <유랑삼천리>였다. 이 작품은 전편, 후편, 해결편으로 편성된 작품이다. 전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부호에게 정실자식 하나, 첩의 아들 둘이 있었다. 부호가 죽으면서 재산을 상속할 때 전 재산을 정실의 자식에게만 남겨 갈등이 시작된다. 첩의 큰아들은 연령상 장남이었으나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집안에서 백안시당하자 괴로움에 못이겨 연일 음주를 하는 등의 방탕한 생활을 한다. 첩의 작은 아들은 막내였는데, 막내는 모두에게 구박을 받는 생활을 한다.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천진난만하게 왜 형님은 항상 비판하며 사느냐고 물으니 '우리는 세상을 잘 못 타고 태어나 늘 슬프게 사는 사람들이란다'라고 대답한다. 막내가 '그럼 사람이 그렇게 슬플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재차 물으니 형은 술취한 목소리로 '사람이 살다가 가슴이 답답할 때는 천길만길 물속에 뛰어들든가 칙칙폭폭하는 기차에 뛰어들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이란다'라고 말한다. 조금만 뒤틀린 행동을 보이면 '첩의 자식!'이라는 꾸중을 들으며 서럽게 살던 막내는 화가 날 때 큰형이 술을 먹던 생각을 하고 술을 훔쳐 먹기도 한다. 어느 날 이유없이 서러운 일을 당하자, 막내는 첩의 자식은 자식이 아니냐, 나는

네 동생이 아니냐며 세상을 집어 던진다. 꽃병이 깨지고 탁자가 엎어지고, 어린아이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객석은 울음바다가 되는 것이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막내는 큰형에게 가슴이 답답할 때는 어쩌면 좋으냐고 하소연하고, 큰형이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헤아려보라고 하자, 자기가 배우던 교과서를 한 장씩 찢어 던지며 하나, 둘, 셋 숫자를 헤아리다가 '나는 유랑 삼천리 길을 떠나겠오'하며 무대에서 사라진다.

전편에 대한 매일신보의 광고는 다음과 같다.

“이 한篇 劇의 眞價를 鑑賞하야 널리 天下에 聞노니 名劇鑑賞의 絶好機會를 遠치 마시고 부디 한번 보신 다음 嚴正한 定評을 나리시옵소서.

- 一. 懸賞問答用紙 …… 賣札口에서 配給
- 一. 入賞者決定 …… 追後決定
- 一. 入賞等級 一等부터 百等까지
- 一. 發表 …… 次周프로그램
- 一. 上(賞)品 : 一等 一人 - 定期招待券(半年分) 二等 一人 : 同(二個月分)”⁹⁾

〈유랑삼천리〉는 관객의 성원을 업고 후편이 제작되기에 이른다. 후편에서는 첩이 정실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쫓겨나고, 장돌뱅이를 만나 새살림을 차린다. 막내는 의붓아버지인 장돌뱅이와의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책갈피를 찢으며 하나, 둘, 셋을 헤아리며 다시 집을 나간다. 〈유랑삼천리〉의 후편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와 마찬가지로, 2시간 반 정도의 원작에 30분정도의 뒷이야기를 덧붙인 것이다. 〈유랑삼천리〉가 지속적인 인기를 끌자, 동양극장에서는 〈유랑삼천리 3편 해결막〉을 제작, 상연한다. 〈유랑삼천리 3편 해결막〉은 그것만으로 두 시간이 걸리는, 독립된 작품이다. 가출한 막내는 우연히 큰형을 만난다. 큰형은 거지였다. 형제는 함께 동냥을 다닌다. 어느 날 형제는 우연히 어머니를 만난다. 세 모자는 얼싸안고 통곡한다. 그런데,

9) 《매일신보》, 1938. 10. 15.

큰형에게는 서서히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실성한 큰형의 마지막 대사 '산길로 가노라 산길로 가노라 무덤이 그리워 산길로 가노라'가 이처럼 무대 위에서 낭송되는 가운데 서서히 막이 내린다.

여러 번 재상연을 계속한 작품은 〈유정무정〉이었다. 〈유정무정〉은 과거가 지 못한 여자가 유부남과 사랑을 나누는 내용의 작품이다. 유부남의 아내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괴로움을 겪는다. 과거가 좋지 못한 여자는 유부남과 같이 시골에 가서 남자에게 본처와의 이혼을 요구한다. 그녀는 순박한 아내만을 괴롭히다가 다시 서울로 와서 살다가 그 남자가 돈이 떨어지자 다른 여자에게 간다.¹⁰⁾

이 작품에 대한 매일신보의 광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過渡期가 낳은 朝鮮의 머느리는 後天的으로 悲劇의 히로인이다. 이 演劇에 나오는 머느리, 男便이 타주는 毒藥을 달게 마시고 高요히 天國으로 向하는 이 머느리의 맛보는 哀絶悲絶한 悲劇에 울지 않은者 누구냐.”¹¹⁾

이상으로 미루어 〈유정무정〉은 전형적인 삼각관계를 다룬 최루성 애정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이 관객의 호응도가 높아 1949년 12월 25일까지 계속 상연되었는데 서울신문에 마지막으로 소개된 광고물을 보면 (그림2)와 같다.

임선규의 〈복두칠성〉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승지라는 부자가 있었다. 자식이 없어서 첩을 셋씩이나 얻었는데도 끝내 득남을 하지는는 실패한다. 마침 지나가는 노승이 있기로 묘방을 물어보니 삼산유곡의 절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장 젊은 셋째 첩을 상노를 딸려 절에 보낸다. 첩이 묵은 곳은



(그림2)

임선규의 〈유정무정〉과 복두칠성)

10) 지경순, 「유정무정」, 《조광》, 1940. 12.

11) 《매일신보》, 1936. 8. 9.

산중에 외파로 떨어진 암자였는데 하루는 그곳에서 수도하던 중이 개인적인 일로 마을에 내려간다. 어둠이 짙어지는데 중은 돌아오지 않고, 산짐승들이 문밖에 와서 문을 긁고 하니 첩이 상노에게 무섭다며 매달린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둘은 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른다. 첩은 백일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도승지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드리어 낳는다. 집에서는 경사가 난 것이기에, 거족적인 잔치를 치루고 난리법석을 피운다. 아이는 커서 공부도 잘하고, 도승지는 인생의 황금기를 구가한다. 그런데 상노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뼈딱해지는 것이었다. 첩에게 협박을 해서 돈을 뜯고, 하루는 이런 식의 행패를 부리다가 도승지와 마주친다. 상노는 술김에 ‘칠성이(아이의 이름)는 내 아들’ 이라고 소리를 친다. 도승지가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상노는 산중에 있었던 일을 말해버린다. 집안은 수라장이 되고, 흥분한 도승지는 혈액검사를 하여 칠성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한 뒤 상노를 도륙내겠다며 길길이 뻗는다. 혈액검사를 해보니 칠성은 상노의 아들로 밝혀지고, 낙심한 도승지는 뒤뜰에 쌓아놓은 칠성단을 도끼로 허물면서 칠성단도 소용없고 불공도 소용없다며 울부짖는 중에 막이 내린다. 전2막이었고 2시간 30분 정도 공연했다. 도승지역에 서일성, 상노역에 약백명, 첩에는 지경순, 아이역에는 엄미화가 출연했다. 나는 칠성의 국민학교 교사역으로 무대에 섰다. 이 작품이 상연된 이후 서울장안에서는 ‘굿한다고 애낭나?’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다.”¹²⁾

〈복두칠성〉은 소실과 하인의 부정과 그로 인한 도승지의 파국이 그 내용인데, 이는 민간에 흔히 유포된 소실과 하인의 부정에 관한 익숙한 내용을 소재로 한 것이다. 백일 불공후에 득손이 사실은 중의 아이라는 내용은 불교나 중계 대한 불신과 함께 민간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이고 마님과 하인의 통정 역시 칼춤의 양반풍자의 내용일 뿐 아니라 욕망의 억압과 그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의 전통적인 소재이다. 또한 작품에서는 친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별방법으로 혈액형 검사방법을 사용한다.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을 이용한 것이 당대인들의 흥미를 유발하였고 이러한 일은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민간전승에 대한 관객정서의 현대적 변화를 보

2) 고설봉(高雪峰), 앞의 책, pp.75~76.

여준다. 이 작품은 한국인의 의식 저변에 깔린 혈연중심주의의 확인을 통하여 관객의 호응을 얻으면서 동시에 이에 대하여 풍자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그리고 <수풍령>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은 차마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에 아버지는 목발을 짚은 채, 문밖에 서 있는 아들에게 “애비자식간에 병신이 되었다고 부자가 아니겠느냐”며 소리친다. 아들은 집안에 들어서며 통곡한다. 아버지의 속깊은 정을 확인하는 순간 관객은 공감의 박수를 보낸다. 사실 빗값에 딸은 소실로 빼앗기고 아들마저 불구로 돌아온 현실 앞에서 온 가족은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양극장 초창기 이운방의 작품 중 비교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사회극 <검사와 사형수>(2막 주연-서월영, 김선영)을 들 수 있겠다.

인간관계 중 특히 특별히 가족 간의 정리가 강조된 <검사와 사형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청년이 연애문제로 시비가 붙은 끝에 강패에 쫓겨 도망을 친다. 힘으로는 도저히 맞겨울 수가 없는데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자 청년은 돌을 들어 강패에게 던진다. 위협을 목적으로 던진 돌이었으나 강패는 머리에 돌을 얻어맞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 청년은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 법정에서 서는데, 청년을 기소하는 검사가 청년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취조를 하고 현장검증도 하고, 법정에서 논고를 통해 “너와 나는 사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지만 여기서는 검사와 사람을 죽인 죄수로 만났다.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이다”라고 사형을 구형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의 선고를 들은 아들이 증거물로 제시한 돌을 붙들고 불가항력적이었던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흐느낀다.¹³⁾

<검사와 사형수>는 형의 희생이 관객의 심금을 울려 여러 번 재상연된 작품이다. 사실 이것은 부자간의 정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사형구형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노단 연출의 <대지의 어머니>는 비교적 여러 번 재상연한 히트작

13) 위의 책, pp. 68~69.

이었다.

산지기 내외가 아들 여럿을 두고 근근히 살고 있었다. 어느날 산지기가 죽고, 아들 하나는 가출을 하여 행방불명이 되는 등 단란하던 가정에는 암운이 깃든다. 어느날 곡식 때문에 시비가 붙어 아들이 낮으로 사람을 찔러 죽인다. 아들은 경찰에게 체포당하여 살인죄로 법정에 서는데 담당검사를 보니 예전에 가출한 자기 형이었다. 어머니는 기구한 운명을 탓하며 통곡을 하고…….¹⁴⁾

이 작품에서 가출한 형은 검사가 되어 가난 때문에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동생과 재판장에서 만난다. 이러한 기구한 운명과 삶은 식민지 시대 비극적인 현실인식을 극대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산중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재현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었다.

2) 희극적인 결말의 작품

동양극장에서 공연된 작품 중 희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작품은 이운방의 〈나는 고와요〉(호화선, 1940.3.17~22), 송영의 〈신사임당〉(청춘좌, 1945.1.29~2.9), 그리고 이서구의 〈어머니의 힘〉(호화선, 1937.11.29~12.7) 등이 있다.

이운방의 후기의 작품인 〈나는 고와요〉(2막5장)는 어렸을 적 유랑걸식하는 장면, 처음 세탁소에 취직하여 손님 옷을 태우고 고민하는 장면이 관객들의 현실적 고난체험과 연결되어 공감을 얻었다.

거리를 유랑하며 밥을 빌어먹던 고아가 세탁소에 취직하여 전심전력을 다한 끝에 자수성가하여 마침내는 세탁소의 주인이 된다. 고아는 막대한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하는데, 재산의 기부이유를 묻자 “나는 고와요”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고아원을 나선다는 내용이다.”¹⁵⁾

14) 위의 책, p.77.

15) 위의 책, p.77.

그 다음으로 최독견의 작품 중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작품은 <단종애사>이다. 이 작품은 청춘좌 단원 총 출동, 동극좌와 회극좌의 간부배우 찬조출연, 등장인물 100여 명 등으로 조직된 공연으로 공연시간이 3시간 내지 4시간에 달하는 스펙타클한 장면이 많았던, 전 15막의 대형 연극이었다. 궁중생활의 묘사와 무대의상으로 제작한 궁중의상이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단종이 살해되는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여 수양대군의 행위를 재평가한 의의가 있다.¹⁶⁾

이 작품은 1947년 6월 27일 경향신문에 광고되었다.



[그림3] 최독견의 <단종애사>

송영의 작품으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작품은 안영일이 연출한 <신사임당>이다. <신사임당>은 동양극장의 경영자가 교체된 이후인 이른바 동양극장 후반기의 최대 히트작이었다. <신사임당>은 제3회 연극경연대회 출품작이었다. 다른 출품작은 노골적인 친일 연극이었는데 반하여 이 작품만은 건전한 역사의식을 표현했던 까닭에 관객들의 열광적인 성원을 받았다. 총독부에서 친일 연극을 하라고 강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작품의 내용이 건전하여 대중의 교화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관객들은 객석은 말할 것도 없고, 층계참에도 뺨뺨하게 들어찼으며, 연극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을 남겨놓고 무대 위에 올라와서 연극을 관람하였다. 연출가 안영일과 그 당시의 경영자 김태운은 '연극에 지장이 많으니 손님을 더 받지 말라', '오는 관객을 쫓을 수 없지 않느냐'며 극장 옆의 공터에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연극 <신사임당>은 신사임당의 일생을 묘사한 작품이었다.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는 이들 둘을 낳고 과거를 준비한다며 서울로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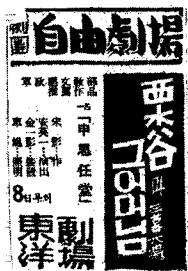
16) 위의 책, p.69.

간 뒤 소식이 끊어진다. 남편이 기생과 난봉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신사임당은 동요하지 않는다. 자녀들의 교육에 힘쓰고 서화에 취미를 붙이고, 화초에 벌레가 붙은 그림을 그려 마당에 말리는데 실물로 착각한 닭이 와서 그림을 쪼기도 한다. 어느 날 율곡이 아버지를 찾아 서울로 떠나는 길에 사임당은 머리꼭지를 잘라 남편에게 전한다. 부인의 꼭지머리를 전해 받은 이원수는 율곡이 눈물로 호소하자 자신의 난봉생활을 청산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장원급제를 한다. 금의환향한 남편이 도포자락 속에서 머리꼭지를 내보이며 부인을 치하하자 시종 깨끗한 모습을 보이던 사임당이 눈물을 떨군다.

이 작품에서 나약한 이원수는 신사임당이 자신의 머리꼭지를 잘라 건네며 굳은 결심을 재촉하자 과거 길에 오른다. 기생 연화에게 빠져 가족도 잊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원수의 모습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남편의 전형이다. 극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2막 전체는 이원수에 대한 풍자이다. 이원수는 친척뻘 되는 영의정의 배경을 업고 기생 연화의 집에 기숙하며 지내는데 영의정의 덕을 보기 위해 찾아온 문침지와 서생원이 연화와의 관계를 감추기 위해 그녀의 친척으로 가장하여 썩까지 바꾸는 등 갖가지 희극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송영 특유의 풍자 희극적 기지가 돋보여 역극적 재미를 더해준다. 반면 1막과 3막은 자녀교육, 서화, 집안일, 부모님 봉양에 지극한 사임당의 현숙함이 돋보인다. 이렇게 볼 때, <신사임당>이 관객동원에 크게 성공한 데에는 우부현녀라는 우리의 서사 전통 주제를 희곡화하여 무대에 올려 그것이 한국인의 심성에 부합한 것에서도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신사임당>의 작품을 동아일보에 1946년 11월 8일 <울곡과 어머니>이라는 제목으로 상연한다는 광고가 게재되었는바, 그 내용은 [그림4]와 같다.

이서구의 작품 <어머니의 힘>은 기생의 신분으로 명문대가의 유복자를 낳아 홀로 키워내어 정식 혈통으로 인정받기까지의 이야기이다. 고난을 극복하는 어머니의 모성애, 모정의 강인함, 즉 <어머니의 힘>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행복-고난-행복의 구도를 그리고 있다. 즉 고난을 극복해내어 행복한 결말을 맺는 구성이다. 이 작품에 대해 1941



[그림4] 송영의
<울곡과 어머니>

년 2월 24일 매일신보의 광고내용을 보면 “……그러나 이 한 편의 명극에는 환난한 인생의 파도를 휘어 나가는 곧은 신념이 있고 새로운 서광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작품의 대중적 공감에 인생의 파도를 헤쳐 나가는 주인공의 고난극복 의지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양극장에서 공연된 작가별 작품의 성향은 주로 체루적 사건과 화류계의 비애, 또는 청춘 남녀의 애정을 소재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작품들이 비록 높은 수준의 격조는 갖추지 못했으나 거의가 일반 대중의 정서에 공감이 가는 내용을 정성들여 썼기 때문에 관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편이었다.¹⁷⁾ 다시 말하면 작품의 내용은 자극적이고 당대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작품의 기본 틀 속에 전통적인 요소들을 수용하였다.

동양극장에서 공연한 대표작품 중에서 희극적인 결말로 끝난 것은 고난을 인내로 극복한 결과였다. <어머니의 힘>의 적대세력인 홍규는 재산 욕심 때문에 정옥을 방해하였으나 자신에게도 재산 분배가 있다는 사실을 안 순간 음모를 스스로 포기한다. <나는 고아요>와 <신사임당>의 경우도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여 마지막에 행복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 것은 작품에서 인물들의 울부짖음과 통곡이었다. 다시 말하면 억눌렀던 한이 폭발된 것이었다. 반면에 <검사와 사형수>에서는 사형 구형, <북두칠성>은 도승지의 오열, <유정무정>에는 경찰에 끌려감, <유랑삼천리>는 가출과 유랑 등 비극적 결말로 끝나고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누이동생을 오랏줄에 끌고 가야하고 오빠는 비극적 상황을 ‘자율찬 운명의 장난’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수풍령>에서 빗값에 딸은 소실로 빼앗기고 아들마저 불구로 돌아온 현실 앞에서 온 가족은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만주로 떠난다. <대지의 어머니>에서도 가장의 죽음과 아들의 가출, 검사와 죄인으로 마주서야 하는 두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기구한 운명을 탓하며 오열한다. <수풍령>과 <대지의 어머니>는 특별히 가난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17) 김미도, 『한국 근대극의 재조명』, 현대미학사, 1995, p.316.

3) 이념적인 결말의 작품

임선규의 <수풍령>과 <단종애사>는 이념관계의 문제작품으로 그 내용은 비극적이었다. 임선규는 그의 데뷔작 <수풍령>을 상연하던 도중 지주와 빈농 사이의 갈등과 함께 빈농부자 간의 이야기를 썼던 것이 민족주의 작품이라 하여 고등검찰로부터 중지명령을 받았다. 제목이 <愁風嶺>이라고, 근심바람이라는 게 뭐냐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 지주가 동네 구장을 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개 농부가 대거리를 하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했다. 임선규가 피검되어 옥고를 치른 것은 물론이고 논산의 생가에까지 가택수색이 행해졌으며 고향의 가족들까지 취조를 받던 중 그의 모친이 고통에 못 이겨 졸도하는 사건이 터졌다. 얼마 후 임선규는 출옥을 했으며 고등경찰에 요시찰 인물로 등재되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했다.¹⁸⁾

다음으로 <단종애사>는 당시 문제작으로 수양대군이 보낸 자객들이 단종을 형제로 목 졸라 죽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이 왕가를 모독했다고 하여 이왕직이 경찰에 항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왕직의 항의를 받아들여 경찰에서는 갑작스레 공연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왕직은 왕실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 창덕궁 내에 사무실이 있었다. 일제는 이왕가에 대한 회유목적으로, 이왕직장관을 친임관으로 임명했었다. 친임관이란, 일본왕이 직접 임명하는 직책으로 조선에서는 총독, 경무총감, 조선군사령관, 경성제대 총장, 이왕직장관 등의 다섯 관직만이 친임관이었다. 이왕직에서 직책을 업고 항의를 하니 일경에서도 물리칠 수 없었던 모양이다.¹⁹⁾

4. 맺음말

연극인들이 갈망해 오던 동양극장의 설립은 흥행극이 목적이었지만 연극이 설 땅을 마련케 했으며 극장건립의 확대, 연극기업화로 연극구도의 재편성,

18) 박정영(朴正瑛), 「동양극장의 임선규」, 《한국연극》, 한국연극협회, 1988. 9, pp.17~18.

19) 고설봉(高雪峰), 앞의 책, p.70

일본류의 신파극을 한국의 대중극으로의 토착화 및 고등신파극의 상연, 실질적인 지도자의 양성, 연출기법의 향상, 대중적인 극단의 창단, 대중정서의 스펙트럼으로써의 역할, 연극인들의 직업의식과 공연의욕 고취, 배우 기여도의 증가 및 활용, 대중과의 친숙함과 경제력 확보, 창작회극의 활성화, 사실주의 연극의 추구, 그리고 창극공연의 정립 등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점이 두드러졌다. 사실 동양극장은 한국에 전문연극을 정착시킨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출범했지만 경영자의 예술적 무지와 대중의 낮은 수준, 재정적인 곤란으로 상업극을 변창시키는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신파극이 리얼리즘과 만나 독특한 대중연극으로 착근되었던 것이다.

요약하면 동양극장의 연극은 대체로 그 내용면에서는 통속성을 통한 상업주의를 지향했으나 연기면에서는 과장된 신파조를 지양하고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연기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동양극장의 이러한 질적인 변화는 일본 신파극의 변화와도 유사한 면이 있었다. 동양극장에서 공연한 레퍼토리 면에서는 가정비극과 화류비극적인 결말의 작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희극적인 결말의 작품이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념적인 결말의 작품도 있었다. 또한 연출 및 연기스타일은 사실주의를 지향했으며 동양극장의 연극은 기술적인 면에서 해방 전 우리 연극이 도달한 최고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동양극장의 설립을 계기로 한국 연극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던 것이다.

참고 문헌

기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삼천리》, 《조광》, 《한국연극》

서향석, 한국연극사-제이기(一九三一年 - 八 · 一五).

단행본

고설봉, 『중언 연극사』, 도서출판 보양, 1990.

김미도, 『한국 근대극의 재조명』, 현대미학사, 1995.

박 황, 『창극사연구』, 백록출판사, 1976.

박 진, 『세세연연－한국의 연극 비장의 화제』, 경화출판사, 196 6.

_____, 『연극에세이 세세연년』, 세손출판사, 1991.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6.

_____, 『한국근대극장변천사』, 태학사, 1998.

_____, 『한국연극운동사』, 태학사, 2001.

_____, 『한국인물연극사 1, 2』, 태학사, 2006.

정노식, 『조선창극사』, 동문선, 1994.

논문

박노홍, 「한국극장사」, 《한국연극》, 4권 5호, 1979. 5.

박희정, 「동양극장의 대중극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박정영, 「동양극장의 임선규」, 《한국연극》, 한국연극협회, 1988. 9.

장혜전, 「동양극장 연극의 대중성」, 《한국연극학》, 한국연극학회, No.19, 2002.

지경순, 「유정무정」, 《조광》, 1940. 12.